

2021년 07월 경남마을교육공동체

우리들의 행복한 마을이야기

제17호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발행|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 담당

|편집| 성정은 / 문의 : 055.268.1523

- 1. 행복교육지구 소식 모아모아
- 2. 천왕봉행복교육지구
- 3. 창원 마을학교를 찾아가요 ~
- 4. 이달의 사람책 - 둔덕중학교 교사 변지원

TOP NEWS

경남교육청, 행복교육지구 공모 설명회 개최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16일(수) 오후 경남행복마을학교에서 도내 시·군 관계자와 교육지원청 관계자, 교직원, 지역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행복교육지구 공모 설명회를 가졌다.

행복교육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아이를 함께 키우기 위하여 교육청과 기초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마을학교 운영 등을 진행한다. 2017년, 김해를 시작으로 18개의 기초지자체 중 13개 지역에서 행복교육지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에는 3개 지역 내외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7월 23일까지 시·군의 공모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서 7월 30일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천 모바일 소식지 <행복노루> 7월호 창간

사천행복교육지구의 모바일 소식지인 <행복노루> 7월호가 창간되었다.

사천 마을교육활동지원가 10명이 중심이 되어 협의회 등을 거쳐 탄생한 이번 소식지는 학생 그린 마을학교지도, 마을교사가 손수 지은 소식지 이름,

자율동아리 학생이 제작한 영상, 이색적인 활동분야의 마을교사 소개, 학교 지원사업 등 여러가지 소식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 있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홍보될 예정이다.



모바일 소식지 1면 디자인



모바일 소식지 협의회

진주금산마을학교 학부모 <내 마음 바로알기> 강좌 열어

진주 지역중심마을학교인 '토요일이 즐거운 금산마을학교'는 지난 28일(월) 저녁 학부모, 지역민 등 15명이 함께하는 학부모 서로 배움터를 열었다. 학부모 서로 배움터는 마을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철학을 공유하고 마을 학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진주내 모든 마을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행복일기 쓰기 등 감성코칭 실천활동으로 이루어진 대중 강좌는 2회기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학부모 소모임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목공예 명장님과 함께 만들어요

천왕봉행복교육지구 <사제동행 목공예 체험교실> 실시

산청교육지원청(교육장 장태분)은 지난 6월 23일과 30일 양일간 산청군 관내 초·중교 학생 및 교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사제동행 목공예 체험교실'을 실시하였다.

천왕봉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야목공방에서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마을학교 자원을 활용하여 사제지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마을학교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우리는 사제지간이에요~



야목공방의 목공예 명장님의 지도 아래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서로 협력해서 정성스럽게 글자를 새기고 사포질을 하여 나만의 찻상을 만드는 시간을 통해 성취감을 맛보고 사제지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오부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명장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제 손으로 이렇게 멋진 찻상을 만들어서 너무 뿌듯하다. 엄마에게 선물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제동행 목공예 체험교실 단체사진

와!와!와! 놀이터로 놀러 오세요

내서마을학교, 어린이를 위한 환경 놀이터 운영



'창원 내서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을담다'에서는 지난 6월 12일(토)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삼품대놀이터에서 내서마을학교 놀이기획단 스마일과 모꼬지 선생님과 함께 환경 놀이터를 열었다.

모꼬지 선생님은 2018년 창원학부모네트워크 놀이활동가로 구성되어 현재 코로나19로 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놀이터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품대공원 환경 놀이터 <지구수비대>와 생태 놀이터, 놀이 수다, 팝업 놀이터를 진행 및 계획 중이다.



페이스페인팅

병뚜껑치기



양말목 체험

홀라후프성만들기



NO어덜트존~

비가 조금씩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한 날씨였지만 아이들만의 놀이터를 위해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한 모습에 마을교사, 지역민, 아이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신나게 놀 수 있었다. 내서의 아이들은 언제나 놀이가 준비되어 있는 환경에서 희망찬 미래를 꿈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까?

물감파티로 알록달록 꿈을 피우는 꿈마을학교

창원 꿈마을학교의 이색적인 마을 수업 현장을 소개합니다.



창원 상북초등학교(교장 하선미)의 꿈마을학교는 2019년 ‘학교 협력형 마을학교’운영을 시작으로 마을학교의 기반을 다지고 올해 ‘지역중심 마을학교’로 학교와 마을이 아이의 삶을 중심에 두고 함께 키울 수 있는 교육공동체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꿈마을학교는 학교 파티 & 요리라는 이색적인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물론 부모님들까지 관심이 많으며 인기가 높다.

지난 6월 23일(수)에는 1년에 단 한번 밖에 없는 일명 ‘빠질 수 없는 물감파티’ 수업이 있는 날이다.

수업시작 전 안전수칙과 규칙 등에 귀기울이며 입가에 설렘이 잔뜩 묻어있는 모습으로 아이들은 물론 마을교사들까지 들뜬(?)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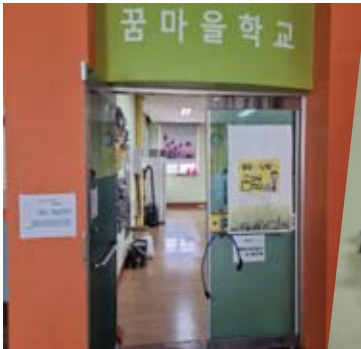


재미난 물감놀이 말해줘~



꿈마을학교는 이밖에도 메이커 교실, 스포츠스태킹 수업, 예코수업 양궁, 배드민턴, 축구, 기타교실 등 다양한 활동과 수업으로 학생들을 위한 특색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일(화)에는 꿈마을학교 5기를 위한 앙케이트 설문 조사를 하였는데 점심시간에 맞춰 아이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상북 꿈마을학교 입구



와우~에바 알려진 작품이 여기에?(신문지 활용)



마을교사 송성경 대표는 “제가 마을교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단지 우리 아이들한테 좋으려고 시작했다. 이제 마을교사로서의 활동을 3년 정도 하다보니 아이들이 다 같이 방과 후에도 함께 수업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엄마, 아빠같은 마을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돌볼 수 있으니까 안심도 되고 뿌듯하다.

현재 꿈마을학교에는 4명의 마을교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마을교사가 관심을 갖고 활동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으며 물감놀이 수업에 참가한 2학년 박소이는 “친구들과 활동을 해서 너무 재미있었다. 마을학교에는 재미난 활동들이 참 많다.”라고소감을 말하였다.



안전한 뭉게구름 거품물감으로 준비 시~작!

이달의 사람책을 소개합니다

배우고 연결하고 실천하는 삶

지은이 : 변지원
거제 둔덕중학교 교사



기획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저는 기획하는 일을 좋아하여 교사생활을 하면서 마을학교 업무를 맡았을 때 여러 가지 관련된 공모사업에 도전하였다.

학생들이 체험 활동을 통해 배운 진로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며 그들이 마을 사람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였다.

차츰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 및 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다양한 활동의 자유학기제 활동에서 배운 것을 꾸준히 연결시켜 봄으로써 체인지메이커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저는 학부시절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아동·가족 관련 공부, 심리상담, 명상 등으로 끊임없이 통찰력을 키우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인지 사람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주로 보는 장점이 생겨 지역민, 학부모, 학생들과 소통하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런 경험들이 현재 마을톡톡어울림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 마을의 구성원로서의 역할과 마을공동체 의식을 경험하면서 더불어 협력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

이렇듯 교사생활을 하면서 내가 자라온 환경에서의 배움이 지역과 마을이 함께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 역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2017. 세대공감프로젝트



2020. 마을회관 봉사활동

자유학년제, 마을과 만나다.

2018년 자유학기제 업무를 하면서 아이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경험하고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고민하다 지역의 하둔마을회관 어르신들과 함께 세대공감프로젝트(첫 만남! 꽃어른과 풀잎청소년, 바리스타, 스마트한 우리동네, 드론으로 우리마을 알아 보기, 학교 축제 초칭, 손바느질배우기, 함께하는 요리활동, 우리마을 시네마 등)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학교협력형 청마마을학교를 열었으며 2021년, 드디어 거제행복교육지구의 마을톡톡어울림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청마마을학교는 행복한 아침나누기, 즐거운 동아리활동, 배우는 청마북카페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신나는 지역축제부스운영 등 거제에서 마을학교하면 둔덕중학교라고 칭할 만큼 인지도가 높다.

또한 올해 마을학교는 지역중심마을학교와 연계한 동아리활동 등 나눔을 바탕으로 운영되어 보다 뜻 깊게 배움과 나눔을 실천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톡톡어울림마을학교 도란도란북카페활동

마을톡톡마을학교,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

학교협력형 마을학교를 3년간 해 오면서 '작은 학교, 로컬이 미래다'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익힐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19에 직면한 2020년에는 소통과 공감이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 중심 마을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더욱 빛나는 작은 학교가 되었던 것 같다.

학교라는 장소는 학생들의 활동 역량을 키우고, 학부모가 함께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배움을 통해 생각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앞으로 마을의 다양한 교육 주체의 참여와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마을학교가 되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리를 찾게 하고, 학교는 교육의 본질인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에 충실하며, 아이들의 진로와 직업 탐색을 함께 이어나가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일상을 실천해 나가는 중이다.